협력과 비전의 통로가 되길…

한국다우코닝 대표이사 **조달호**

지난 20년간 국내 화학산업의 길잡이로서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국내 대표 화학전문지 <화학저널>이 스무 살의 어엿한 청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던 화학산업의 유아기 시절, 전문지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척박한 언론 토양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나 오늘날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대변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오랜 세월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은 UN이 지정한 화학의 해로, 이는 화학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지금, 한국 화학기업과 업계 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의 역할과 업계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업계,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전문채널로서 앞으로도 국내 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화학저널의 창간 20주년을 경축 드리고, 또 다른 2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화학저널 2011/5/16>